

일곡중앙교회, 800명 예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안 지켜

지난달 28일 신도 1500명 중 절반 참석... 확진자 14명 발생 광주 집단 발병에도 일부 교회 어제 집합예배 강행 '눈총'

“광주 일곡중앙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느슨한 방역의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첫 집단발병이 발생한 다음날에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곡중앙교회에서 감염된 확진자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일요일인 5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5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교회도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은 교회들이 특별헌금을 받는 “맥추 감사절”로, 일부 교회에선 헌금을 받기 위해 신도들에게 예배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

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복귀 일곡중앙교회에 오는 19일까지 시설 폐쇄 행정 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 미이행 여부를 조사해 고발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 관련자 중 이날 현재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가 이 교회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8일 예배 때 신도들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았다. 또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곡중앙교회의 전체 신도는 1500여 명으로, 지난달 28일 1:2:3부 예배에 연인원 8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곡중앙교회 신도 중 확진자는 지금까지 14명이며, 광주시는 일단 예배 참석자 800여명 전원에 대해 예배가 열렸던 날로부터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일곡중앙교회에선 광주 첫 초등학생(일동초 3학년) 감염자까지 나왔다. 광주시는 이처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 조치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이날도 광주시가 광주지역 내 교회 1492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온라인 예배 또는 예배 취소는 408개소에 불과했다. 집합예배를 강행한 1084곳 중 그나마 50인 미만 조치라도 지키는 교회는 1029개소였고, 나머지 55개소는 50인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방역당국은 이날 기존 유흥업소와 PC방 등 13곳과 함께 교회와 사찰 등 종교 시설, 학원,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 시설 등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시설들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체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예배 중단 등 운영을 자체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총리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 않아... 슬기롭게 고비 넘겨야”

광주서 중대본 회의 “시민협조·방역수칙 철저히 당부” 市, 재난상황 효율적 대처위해 ‘의료원’ 설립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광주를 찾아 시민들의 협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광주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광주 확진 사례를 보면 방문 판매업체와 종교시설 등 밀접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해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며 대부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시간과 장소만 달리 할 뿐 똑같이 반복돼 매우 안타깝다”며 “더 이상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 방역 취약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가 이날 광주에서 중대본 회의를 연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광주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제2의 대구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정 총리를 따로 만나 광주 의료원 설립,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 추진, 인공지능 시범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 지원을 건넰 것이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만 지방의료원이 없다”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재난-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공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 의료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장은 요청했다. 그는 또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이 지자체 책임으로 돼 있으나 군 공항은 국가 시설인 만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



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될 수 있도록 총리실 차원에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인공지능 시

변종바이러스에 재유행까지... 세계 초토화

하루 21만명 확진 ‘팬데믹 이후 최다’... 미주대륙이 61%

재유행, 전파력이 강한 변종의 출현, 일부 국가의 부실 대응 논란과 함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대한 확산세가 재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4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2326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쌍두마차’는 미국과 브라질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5만3213명, 브라질에서 4만810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WHO에 보고하는 등 미주 대륙에서만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12만97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국과 브라질은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려 고삐 풀린 확산세에 직면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억제에 대한 근본적 안전 지침을 스스로 외면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남아시아에서 2만7947명, 중동을 포함한 동부 지중해에서 2만43명, 유럽에서 1만9694명, 아프리카에서 1만2619명, 서태평양에서 2251명 순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하고 있다. 최근 다국적연구진이 의학저널 셀(Cell)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염력이 더 강하고 치명률이 비슷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은 각국 정부가 정확한 코로나19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2021년 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6억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같은 기간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40만~37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심지어 이때에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코로나19 여전히 취약한 상태일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 없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일축했다. 최 부상은 지난 4일 발표된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써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 부상은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전과를 가지고 다가왔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단

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10월의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는데 대해 정상회담 무용론을 북한이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또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위한 ‘이벤트’ 차원의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담화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선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친 한국 정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최 부상은 그러나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이거나 자극적인 비난을 하지 않아 대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 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산행안내

7월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8일(수) 전남 여수 남도 상산-돌레길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 화동 현대물류앞 07:30 *다음 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11일(토)
▲광주호산회 7월11일(토) 순창 송대봉 체계산 구름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 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1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7월12일(일)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포암산 961m, 만수봉 985m), 염주체육관 05:20, 무등경기장 05:40, 동광주홀플러스 06:0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1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15일(수) 전북 장수 팔공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 화동 현대물류앞 07:30 * 다음 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인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지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중앙 222-8171
남구	남부 675-5530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천 376-7153 · 치평 376-6511 · 봉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은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담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